

정론

위대한 조국을 조국해방 70돐에 삼가 이 글을 드린다

백두산!
반만년 역사를 즐기거기에 엮고 천하를 굽어보는 성스러운 산악우에 우리 서있다.
어인 70년! 참으로 멀리도 흘러왔다.
전설의 빨치산 김대장 우리 수령님이 조선을 안이일으켜 우리 힘으로 강도 일제를 때려눕히고 동방에서 반과썩레방전의 승리를 이룩하신 때로부터 70년.

그렇게 솟아치며 폭풍치며 기나긴 년대들을 주름잡아 내달려온 오늘 이 산정에 올라 다시 보는 나의 조국, 우리 인민은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그 존엄 높이고 떨치느냐.

소리높이 웨치라라, 백두산아.
그대와 함께 애라게 불려왔고 70년의 험난한 파도를 넘고 헤치며 가슴에 불덩이처럼 부둥켜안고 이 조선의 강대함을, 이 조국의 무궁한 영광을!

1

5,000년과 70년, 너무도 짧은 역사의 한토막이라고 할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감히 말하려 한다. 우리의 70년은 민족의 반만년에 맞먹는, 아니 그보다 더 거창한 년대기였다.

그저 작았던 나라도 아니었고 그저 짓밟힌 나라도 아니었다. 이 행성에서 사라졌던 나라였다. 국호가 사라지고 지명이 사라지고 말과 글이 사라지고 성곽 이름마저 사라졌다. 흘러가던 자연의 시간마저도 빼앗긴 말그대로 죽어버린 나라, 세계가 기억조차 하지 않던 잃어버린 민족이었다. 가슴아리게도 5,000년이 우리 민족에게 남긴 유산이 이것이었다고 생각해보라. 불과 몇십 년이 않은 70여년전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세대들이 당했던 참담한 아픔이었다.

그러나 70년은 우리 세대에겐 얼마나 빛나는 새로운 이름, 얼마나 당당한 새로운 존엄, 얼마나 자랑스러운 새로운 조국을 안겨주었는가.

너는 왜 남처럼 코지를 못하느냐고 이 나라 시인도 가슴을 쥐어뜯던 나라, 제백에 얻어맞고 땅에 짓눌려 허리마저 굽었던 민족이 오늘날은 어떻게 세계우에 우뚝 솟았고 가슴격고 천하를 굽어보고있는가.

주체적력량으로 간직한 일제를 배망시키고 보복으로 원자탄을 휘두르는 《8강》의 미제를 항복시켰다. 제마미우에서든 원리마를 타고 날아왔었고 고난의 언덕에서도 솟아올랐고 해를 보유했던 강국, 이제날 미제에게 원한을 당하던 나라로부터 미제에게 죽음과 공포를 주는 나라로 위용 떨치는 오늘의 우리 조선.

남들은 기차가 달리고 비행기가 날 때 초라하고 락후한것밖에 내놓을것이 없었던 나라가 최첨단기계들로 장비된 굵직한 공업기계를 들고 과학연구기계를, 현대적인 거리들과 초고층상림집들이 들어찬 눈부신 도로 그 모습을 완전히 바꾸었다. 거미줄 같은 폐기물들이 5,000년의 주름살을 날 드넓은 사회주의향으로 변모되고 이젠 날은 붉은진흙등대이라 하여 《붉은등대》로 불리우던 장천담에는 꿈보다 황홀하고 그림보다 아름다운 21세기의 문명농촌이 솟아올랐다. 토스세웃을 입고 제방의 사과할 수 있는 《외》로 이마에 《도적》이라고 찍혀야 했던 우리 아이들이 오늘은 나라의 용이 되어 최한한 엘도라도식물놀이장과 유적장, 스키장, 야영소, 화려한 궁전들에서 만복을 누리고있다.

장구한 세월의 흐름은 누구나 변화하는 새로운 현실앞에 서게 한다. 그러나 이것은 변했다는 말로써는 그기대함과 실현된 세계를 다 표현할수 없다. 하늘땅이 새로 열린것과 같은 이 조선의 새로운 출현, 완전한 하나의 한생이다.

이 땅의 지위와 높이를 바꾸어놓는 놀라운 역사의 기적이 일어났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국해방의 역사적사건과 70년의 언덕에 거연히 솟아오른 백두산대국의 위엄에 대한 커다란 긍지를 안겨주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지금 대국이라고 자처하는 나라가 적지 않은데 령토가 넓고 인구가 많다고 하여 대국이 되는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사상, 자기 민족의 자주정신이 없으면 대국이 될수 없습니다.》
백두산대국!
세상에 이처럼 그 모습이 장엄하게 어려오고 그 부름이 이토록 가슴을 넓게 열어주고 비굴해 없는 긍지와 열정이 불길로 타오르게 하는 영광의 부름이 또 어디 있으랴.
저 멀리 만리대륙에 억만자락을 펼치고 세계의 하늘을 지붕처럼 머리에 떠민 백두산의 모습처럼 조선은 거룩하게도 세계우에 서있다. 역세기도 벽사의 흐름을 이끌어 도도히 나아간다.
70년은 이것을 위한 장구하고도 피어린 역사의 태동이었다. 이것을 안아올린 백두산의 진화화산분출이었다.
나라의 유구한 민족사와 그 파란만장의 수난사를 한생도록 기록해온 한 역사학자는 《옛백년도 아니고 몇천년도 아닌 70년이라는 한세기도 못되는 기간에, 그것도 사라졌던 나라가 다시 그 모습을 세계에 보이게도 기적이지만 거기서 상상할수 없는 도약을 이루어 현시대의 가장 튼튼하고 양양한 강국으로 우뚝 솟은 조선은 실로 력사에 전무후무한 신화라고 말해야 할것이다.》라고 자기의 격조된 심정을 피력하였다.

조국해방의 최후성전도 우리의 주체적력량으로 맞이했고 미제를 때려부신 빛나는 전승도 영웅적 우리 군대와 인민이 산악같이 일떠서 안아온것이다. 우리의 대동강반에 오늘도 활활 타오르는 주체사상탑의 불화가 또 말해주듯이 원리마도 우리 힘으로 애고 위상과 핵도 우리 손으로 거머쥐었다. 전략적수합의 한도한수합합법사상공도 우리의 승리로 이룩하였고 칠감상이 바다로 가고 대서양언어가 통해 사는 최한한 화족도 조선사람의 피와 땀으로 안아온것이다.

자주를 틀어쥐면 작아도 대국이다. 자주는 강국의 진실방식, 강국의 생존방식이며 그것이야말로 가장 완전한 대국의 가장 정확한 국호와 같다. 자주가 없는 제국은 지가 없는 땅덩어리와 같고 자주가 없는 제국은 아무런 면치나도 결코 제국이 아니며 자주가 없는 종대는 한갓 쇠붙이와 불과하다. 자주가 없는 종대이고 자주가 굶은보화이고 자주가 무적의 성벽이다. 보라, 이 바방, 저 바방이 불어치고 대국들이 두려운 야망을 드러내놓고있는 이 어지러운 세상에 볼 때 다 시금 소스라치게도 우리가 뇌리에 새기는 것은 우리 수령님 자주의 해를 휘어주신 것이, 우리 장군님 자주의 튼튼한 궤도에 우리를 세워주신것이 얼마나 찬란한 영광이며 그것이 없었더라, 그 길이 아니었다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되었으랴 하는 가슴저는 생각이다.

70년은 인간의 한생과 맞먹는다고도 할수 있다. 조국은 여러 세대가 바뀌었다. 마치도 캄바람처럼마루로 뜻없이 물과 누리를 굽어보는 거룩한 어머니의 모습과도 같은 나의 조국, 세손으로 무장을 잡고 세손으로 빈리에서 첫살을 뜨고 세손으로 문명강국건설의 오늘을 펼쳐서 성스러운 백두산과 그 이름을 나란히 한 세상에 들도 없는 우리의 대국이어!

이해는 온 지구가 70년을 말하고있다. 서방도 동방도 말한다. 제2차 세계대전후 자기의 운명을 걸머지고 제각기 출발하여 오늘에 이른 나라와 민족들이 되새기는 교훈과 진로는 각이하다. 지구의 곳곳에 사회주의붉은기가 날리고 통사간의 평전시대가 흘렀다. 사회주의강국의 붉은기가 내리워지고 유럽에서 사회주의란 말이 사라졌다. 영연히 지지 않는 해로고 자처하던 자본주의의 종말시대가 막을 올렸다. 한편 인간이 처음으로 우주로 오르고 새로운 기술혁명시대의 도래와 함께 경제생산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였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이 70년의 진정한 승리자인가. 무엇이 이 70년의 진정한 발전이고 비약인가.

저 멀리 사회주의가 좌절된 어느 한 나라의 인사는 《제2차 세계대전의 승리로부터 시작된 70년을 뒤돌아보니 우리에게는 결코 오직 오직만이 흥리가 있다. 바로 사회주의이다. 전승 일흔들과 해방 일흔들을 맞는 우리와 조선의 차이는 여기에 있다.》고 썼다.

남들은 제도과 리념이 바뀌고 국기와 국호가 달라지고 지도와 문화가 달라질 때

단 한번도 흔들림없이 자기가 선택한 한길을 끝까지 지키온 이 조국, 고난의 언덕은 높고높아도 가는 길은 언제나 끝마로 이어온 우리 조선,
그대의 모습은 세계라는 드넓은 광야에 타오른 하나의 해와도 같이 밝은 빛을 뿌린다. 그대의 형상은 인류가 가고싶어도 가지 못했던 길, 웨치고싶어도 웨치지 못했던 말, 이루어싶어도 이루어 못했던 꿈을 어떻게 실현해왔는가를 증명해주는 희망의 등대로 서있다.

지나해 눈보라를 헤치시며 오르시었고 조국이 70년이 되는 이해의 봄에도 백두산부터 오르신 우리 원수님,
어찌하여 그이께서는 저 멀리 솟아오르는 해를보고 그리도 환희에 넘쳐 맞이하였던가. 그것은 정녕 이 70년의 조선혁명사가 안아올린 백두산대국의 장엄한 태동을 보신것이었고 더 위창찬한하게 펼쳐질 위대한 수령님들의 거룩한 영상이요 빛나는 새로운 대국의 미래를 맞이하신것이였다.

조선은 세계의 백두산대국이다.
력사는 이제 이 진리를 대대손손 증명하며 자기 힘으로 일떠선 진정한 강국이 펼쳐놓게 될 자주의 새 세계를 환희롭게 보여주게 될것이다.

2

어제날에는 위인을 모시지 못하여 나라를 빼앗긴것이 울림막마루손우승자였지만 가슴에 종주국의 기발을 달아야 했던 망국의 치욕, 돌아와도 반겨줄 조국이 없음을 품어올린것이 그 실음만도 가슴을 허비는데 그 침략자의 국기를 단 가슴을 지원비리고 자기의 장한 아들의 다리밖에 신문에 보여줄수 없었던 이 나라의 눈물의 아픔이여,
그러나 오늘 조선의 새로운 체육화를 창조한 우리의 너자추구선수들은 어떤 영광을 안고 어떤 행복에 겨워 세계앞에 나섰는가.

우승의 최고 광복새국기를 높이 날리며 우리는 사회사명관통자의 전사로 싸워왔다고 조국의 하늘을 우러러 승리의 경배를 드리고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감격의 눈물속에 목놓아 격정을 리치는 그들에게 온 나라가 동무들을 기다리고있다. 건강한 몸으로 빨리 돌아오라고 사랑의 축하전문을 보내주시고도 친히 비행장까지 나가서 개인장군들을 맞이하신 격정의 화폭, 이제 며칠이면 우리 조국이 70년의 년풍을 새기는 이 8월의 이기가 이다.

조선은 세계의 백두산대국이다.
력사는 이제 이 진리를 대대손손 증명하며 자기 힘으로 일떠선 진정한 강국이 펼쳐놓게 될 자주의 새 세계를 환희롭게 보여주게 될것이다.

어제날에는 위인을 모시지 못하여 나라를 빼앗긴것이 울림막마루손우승자였지만 가슴에 종주국의 기발을 달아야 했던 망국의 치욕, 돌아와도 반겨줄 조국이 없음을 품어올린것이 그 실음만도 가슴을 허비는데 그 침략자의 국기를 단 가슴을 지원비리고 자기의 장한 아들의 다리밖에 신문에 보여줄수 없었던 이 나라의 눈물의 아픔이여,
그러나 오늘 조선의 새로운 체육화를 창조한 우리의 너자추구선수들은 어떤 영광을 안고 어떤 행복에 겨워 세계앞에 나섰는가.

우승의 최고 광복새국기를 높이 날리며 우리는 사회사명관통자의 전사로 싸워왔다고 조국의 하늘을 우러러 승리의 경배를 드리고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감격의 눈물속에 목놓아 격정을 리치는 그들에게 온 나라가 동무들을 기다리고있다. 건강한 몸으로 빨리 돌아오라고 사랑의 축하전문을 보내주시고도 친히 비행장까지 나가서 개인장군들을 맞이하신 격정의 화폭, 이제 며칠이면 우리 조국이 70년의 년풍을 새기는 이 8월의 이기가 이다.

조선은 세계의 백두산대국이다.
력사는 이제 이 진리를 대대손손 증명하며 자기 힘으로 일떠선 진정한 강국이 펼쳐놓게 될 자주의 새 세계를 환희롭게 보여주게 될것이다.

어제날에는 위인을 모시지 못하여 나라를 빼앗긴것이 울림막마루손우승자였지만 가슴에 종주국의 기발을 달아야 했던 망국의 치욕, 돌아와도 반겨줄 조국이 없음을 품어올린것이 그 실음만도 가슴을 허비는데 그 침략자의 국기를 단 가슴을 지원비리고 자기의 장한 아들의 다리밖에 신문에 보여줄수 없었던 이 나라의 눈물의 아픔이여,
그러나 오늘 조선의 새로운 체육화를 창조한 우리의 너자추구선수들은 어떤 영광을 안고 어떤 행복에 겨워 세계앞에 나섰는가.

우승의 최고 광복새국기를 높이 날리며 우리는 사회사명관통자의 전사로 싸워왔다고 조국의 하늘을 우러러 승리의 경배를 드리고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감격의 눈물속에 목놓아 격정을 리치는 그들에게 온 나라가 동무들을 기다리고있다. 건강한 몸으로 빨리 돌아오라고 사랑의 축하전문을 보내주시고도 친히 비행장까지 나가서 개인장군들을 맞이하신 격정의 화폭, 이제 며칠이면 우리 조국이 70년의 년풍을 새기는 이 8월의 이기가 이다.

조선은 세계의 백두산대국이다.
력사는 이제 이 진리를 대대손손 증명하며 자기 힘으로 일떠선 진정한 강국이 펼쳐놓게 될 자주의 새 세계를 환희롭게 보여주게 될것이다.

어제날에는 위인을 모시지 못하여 나라를 빼앗긴것이 울림막마루손우승자였지만 가슴에 종주국의 기발을 달아야 했던 망국의 치욕, 돌아와도 반겨줄 조국이 없음을 품어올린것이 그 실음만도 가슴을 허비는데 그 침략자의 국기를 단 가슴을 지원비리고 자기의 장한 아들의 다리밖에 신문에 보여줄수 없었던 이 나라의 눈물의 아픔이여,
그러나 오늘 조선의 새로운 체육화를 창조한 우리의 너자추구선수들은 어떤 영광을 안고 어떤 행복에 겨워 세계앞에 나섰는가.

우승의 최고 광복새국기를 높이 날리며 우리는 사회사명관통자의 전사로 싸워왔다고 조국의 하늘을 우러러 승리의 경배를 드리고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감격의 눈물속에 목놓아 격정을 리치는 그들에게 온 나라가 동무들을 기다리고있다. 건강한 몸으로 빨리 돌아오라고 사랑의 축하전문을 보내주시고도 친히 비행장까지 나가서 개인장군들을 맞이하신 격정의 화폭, 이제 며칠이면 우리 조국이 70년의 년풍을 새기는 이 8월의 이기가 이다.

조선은 세계의 백두산대국이다.
력사는 이제 이 진리를 대대손손 증명하며 자기 힘으로 일떠선 진정한 강국이 펼쳐놓게 될 자주의 새 세계를 환희롭게 보여주게 될것이다.

어제날에는 위인을 모시지 못하여 나라를 빼앗긴것이 울림막마루손우승자였지만 가슴에 종주국의 기발을 달아야 했던 망국의 치욕, 돌아와도 반겨줄 조국이 없음을 품어올린것이 그 실음만도 가슴을 허비는데 그 침략자의 국기를 단 가슴을 지원비리고 자기의 장한 아들의 다리밖에 신문에 보여줄수 없었던 이 나라의 눈물의 아픔이여,
그러나 오늘 조선의 새로운 체육화를 창조한 우리의 너자추구선수들은 어떤 영광을 안고 어떤 행복에 겨워 세계앞에 나섰는가.

우승의 최고 광복새국기를 높이 날리며 우리는 사회사명관통자의 전사로 싸워왔다고 조국의 하늘을 우러러 승리의 경배를 드리고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감격의 눈물속에 목놓아 격정을 리치는 그들에게 온 나라가 동무들을 기다리고있다. 건강한 몸으로 빨리 돌아오라고 사랑의 축하전문을 보내주시고도 친히 비행장까지 나가서 개인장군들을 맞이하신 격정의 화폭, 이제 며칠이면 우리 조국이 70년의 년풍을 새기는 이 8월의 이기가 이다.

조선은 세계의 백두산대국이다.
력사는 이제 이 진리를 대대손손 증명하며 자기 힘으로 일떠선 진정한 강국이 펼쳐놓게 될 자주의 새 세계를 환희롭게 보여주게 될것이다.

어제날에는 위인을 모시지 못하여 나라를 빼앗긴것이 울림막마루손우승자였지만 가슴에 종주국의 기발을 달아야 했던 망국의 치욕, 돌아와도 반겨줄 조국이 없음을 품어올린것이 그 실음만도 가슴을 허비는데 그 침략자의 국기를 단 가슴을 지원비리고 자기의 장한 아들의 다리밖에 신문에 보여줄수 없었던 이 나라의 눈물의 아픔이여,
그러나 오늘 조선의 새로운 체육화를 창조한 우리의 너자추구선수들은 어떤 영광을 안고 어떤 행복에 겨워 세계앞에 나섰는가.

우승의 최고 광복새국기를 높이 날리며 우리는 사회사명관통자의 전사로 싸워왔다고 조국의 하늘을 우러러 승리의 경배를 드리고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감격의 눈물속에 목놓아 격정을 리치는 그들에게 온 나라가 동무들을 기다리고있다. 건강한 몸으로 빨리 돌아오라고 사랑의 축하전문을 보내주시고도 친히 비행장까지 나가서 개인장군들을 맞이하신 격정의 화폭, 이제 며칠이면 우리 조국이 70년의 년풍을 새기는 이 8월의 이기가 이다.

조선은 세계의 백두산대국이다.
력사는 이제 이 진리를 대대손손 증명하며 자기 힘으로 일떠선 진정한 강국이 펼쳐놓게 될 자주의 새 세계를 환희롭게 보여주게 될것이다.

어제날에는 위인을 모시지 못하여 나라를 빼앗긴것이 울림막마루손우승자였지만 가슴에 종주국의 기발을 달아야 했던 망국의 치욕, 돌아와도 반겨줄 조국이 없음을 품어올린것이 그 실음만도 가슴을 허비는데 그 침략자의 국기를 단 가슴을 지원비리고 자기의 장한 아들의 다리밖에 신문에 보여줄수 없었던 이 나라의 눈물의 아픔이여,
그러나 오늘 조선의 새로운 체육화를 창조한 우리의 너자추구선수들은 어떤 영광을 안고 어떤 행복에 겨워 세계앞에 나섰는가.

우승의 최고 광복새국기를 높이 날리며 우리는 사회사명관통자의 전사로 싸워왔다고 조국의 하늘을 우러러 승리의 경배를 드리고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감격의 눈물속에 목놓아 격정을 리치는 그들에게 온 나라가 동무들을 기다리고있다. 건강한 몸으로 빨리 돌아오라고 사랑의 축하전문을 보내주시고도 친히 비행장까지 나가서 개인장군들을 맞이하신 격정의 화폭, 이제 며칠이면 우리 조국이 70년의 년풍을 새기는 이 8월의 이기가 이다.

조선은 세계의 백두산대국이다.
력사는 이제 이 진리를 대대손손 증명하며 자기 힘으로 일떠선 진정한 강국이 펼쳐놓게 될 자주의 새 세계를 환희롭게 보여주게 될것이다.

어제날에는 위인을 모시지 못하여 나라를 빼앗긴것이 울림막마루손우승자였지만 가슴에 종주국의 기발을 달아야 했던 망국의 치욕, 돌아와도 반겨줄 조국이 없음을 품어올린것이 그 실음만도 가슴을 허비는데 그 침략자의 국기를 단 가슴을 지원비리고 자기의 장한 아들의 다리밖에 신문에 보여줄수 없었던 이 나라의 눈물의 아픔이여,
그러나 오늘 조선의 새로운 체육화를 창조한 우리의 너자추구선수들은 어떤 영광을 안고 어떤 행복에 겨워 세계앞에 나섰는가.

우승의 최고 광복새국기를 높이 날리며 우리는 사회사명관통자의 전사로 싸워왔다고 조국의 하늘을 우러러 승리의 경배를 드리고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감격의 눈물속에 목놓아 격정을 리치는 그들에게 온 나라가 동무들을 기다리고있다. 건강한 몸으로 빨리 돌아오라고 사랑의 축하전문을 보내주시고도 친히 비행장까지 나가서 개인장군들을 맞이하신 격정의 화폭, 이제 며칠이면 우리 조국이 70년의 년풍을 새기는 이 8월의 이기가 이다.

조선은 세계의 백두산대국이다.
력사는 이제 이 진리를 대대손손 증명하며 자기 힘으로 일떠선 진정한 강국이 펼쳐놓게 될 자주의 새 세계를 환희롭게 보여주게 될것이다.

어제날에는 위인을 모시지 못하여 나라를 빼앗긴것이 울림막마루손우승자였지만 가슴에 종주국의 기발을 달아야 했던 망국의 치욕, 돌아와도 반겨줄 조국이 없음을 품어올린것이 그 실음만도 가슴을 허비는데 그 침략자의 국기를 단 가슴을 지원비리고 자기의 장한 아들의 다리밖에 신문에 보여줄수 없었던 이 나라의 눈물의 아픔이여,
그러나 오늘 조선의 새로운 체육화를 창조한 우리의 너자추구선수들은 어떤 영광을 안고 어떤 행복에 겨워 세계앞에 나섰는가.

우승의 최고 광복새국기를 높이 날리며 우리는 사회사명관통자의 전사로 싸워왔다고 조국의 하늘을 우러러 승리의 경배를 드리고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감격의 눈물속에 목놓아 격정을 리치는 그들에게 온 나라가 동무들을 기다리고있다. 건강한 몸으로 빨리 돌아오라고 사랑의 축하전문을 보내주시고도 친히 비행장까지 나가서 개인장군들을 맞이하신 격정의 화폭, 이제 며칠이면 우리 조국이 70년의 년풍을 새기는 이 8월의 이기가 이다.

조선은 세계의 백두산대국이다.
력사는 이제 이 진리를 대대손손 증명하며 자기 힘으로 일떠선 진정한 강국이 펼쳐놓게 될 자주의 새 세계를 환희롭게 보여주게 될것이다.

어제날에는 위인을 모시지 못하여 나라를 빼앗긴것이 울림막마루손우승자였지만 가슴에 종주국의 기발을 달아야 했던 망국의 치욕, 돌아와도 반겨줄 조국이 없음을 품어올린것이 그 실음만도 가슴을 허비는데 그 침략자의 국기를 단 가슴을 지원비리고 자기의 장한 아들의 다리밖에 신문에 보여줄수 없었던 이 나라의 눈물의 아픔이여,
그러나 오늘 조선의 새로운 체육화를 창조한 우리의 너자추구선수들은 어떤 영광을 안고 어떤 행복에 겨워 세계앞에 나섰는가.

우승의 최고 광복새국기를 높이 날리며 우리는 사회사명관통자의 전사로 싸워왔다고 조국의 하늘을 우러러 승리의 경배를 드리고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감격의 눈물속에 목놓아 격정을 리치는 그들에게 온 나라가 동무들을 기다리고있다. 건강한 몸으로 빨리 돌아오라고 사랑의 축하전문을 보내주시고도 친히 비행장까지 나가서 개인장군들을 맞이하신 격정의 화폭, 이제 며칠이면 우리 조국이 70년의 년풍을 새기는 이 8월의 이기가 이다.

조선은 세계의 백두산대국이다.
력사는 이제 이 진리를 대대손손 증명하며 자기 힘으로 일떠선 진정한 강국이 펼쳐놓게 될 자주의 새 세계를 환희롭게 보여주게 될것이다.

어제날에는 위인을 모시지 못하여 나라를 빼앗긴것이 울림막마루손우승자였지만 가슴에 종주국의 기발을 달아야 했던 망국의 치욕, 돌아와도 반겨줄 조국이 없음을 품어올린것이 그 실음만도 가슴을 허비는데 그 침략자의 국기를 단 가슴을 지원비리고 자기의 장한 아들의 다리밖에 신문에 보여줄수 없었던 이 나라의 눈물의 아픔이여,
그러나 오늘 조선의 새로운 체육화를 창조한 우리의 너자추구선수들은 어떤 영광을 안고 어떤 행복에 겨워 세계앞에 나섰는가.

우승의 최고 광복새국기를 높이 날리며 우리는 사회사명관통자의 전사로 싸워왔다고 조국의 하늘을 우러러 승리의 경배를 드리고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감격의 눈물속에 목놓아 격정을 리치는 그들에게 온 나라가 동무들을 기다리고있다. 건강한 몸으로 빨리 돌아오라고 사랑의 축하전문을 보내주시고도 친히 비행장까지 나가서 개인장군들을 맞이하신 격정의 화폭, 이제 며칠이면 우리 조국이 70년의 년풍을 새기는 이 8월의 이기가 이다.

조선은 세계의 백두산대국이다.
력사는 이제 이 진리를 대대손손 증명하며 자기 힘으로 일떠선 진정한 강국이 펼쳐놓게 될 자주의 새 세계를 환희롭게 보여주게 될것이다.

어제날에는 위인을 모시지 못하여 나라를 빼앗긴것이 울림막마루손우승자였지만 가슴에 종주국의 기발을 달아야 했던 망국의 치욕, 돌아와도 반겨줄 조국이 없음을 품어올린것이 그 실음만도 가슴을 허비는데 그 침략자의 국기를 단 가슴을 지원비리고 자기의 장한 아들의 다리밖에 신문에 보여줄수 없었던 이 나라의 눈물의 아픔이여,
그러나 오늘 조선의 새로운 체육화를 창조한 우리의 너자추구선수들은 어떤 영광을 안고 어떤 행복에 겨워 세계앞에 나섰는가.

우승의 최고 광복새국기를 높이 날리며 우리는 사회사명관통자의 전사로 싸워왔다고 조국의 하늘을 우러러 승리의 경배를 드리고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감격의 눈물속에 목놓아 격정을 리치는 그들에게 온 나라가 동무들을 기다리고있다. 건강한 몸으로 빨리 돌아오라고 사랑의 축하전문을 보내주시고도 친히 비행장까지 나가서 개인장군들을 맞이하신 격정의 화폭, 이제 며칠이면 우리 조국이 70년의 년풍을 새기는 이 8월의 이기가 이다.

조선은 세계의 백두산대국이다.
력사는 이제 이 진리를 대대손손 증명하며 자기 힘으로 일떠선 진정한 강국이 펼쳐놓게 될 자주의 새 세계를 환희롭게 보여주게 될것이다.

어제날에는 위인을 모시지 못하여 나라를 빼앗긴것이 울림막마루손우승자였지만 가슴에 종주국의 기발을 달아야 했던 망국의 치욕, 돌아와도 반겨줄 조국이 없음을 품어올린것이 그 실음만도 가슴을 허비는데 그 침략자의 국기를 단 가슴을 지원비리고 자기의 장한 아들의 다리밖에 신문에 보여줄수 없었던 이 나라의 눈물의 아픔이여,
그러나 오늘 조선의 새로운 체육화를 창조한 우리의 너자추구선수들은 어떤 영광을 안고 어떤 행복에 겨워 세계앞에 나섰는가.

우승의 최고 광복새국기를 높이 날리며 우리는 사회사명관통자의 전사로 싸워왔다고 조국의 하늘을 우러러 승리의 경배를 드리고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감격의 눈물속에 목놓아 격정을 리치는 그들에게 온 나라가 동무들을 기다리고있다. 건강한 몸으로 빨리 돌아오라고 사랑의 축하전문을 보내주시고도 친히 비행장까지 나가서 개인장군들을 맞이하신 격정의 화폭, 이제 며칠이면 우리 조국이 70년의 년풍을 새기는 이 8월의 이기가 이다.

조선은 세계의 백두산대국이다.
력사는 이제 이 진리를 대대손손 증명하며 자기 힘으로 일떠선 진정한 강국이 펼쳐놓게 될 자주의 새 세계를 환희롭게 보여주게 될것이다.

어제날에는 위인을 모시지 못하여 나라를 빼앗긴것이 울림막마루손우승자였지만 가슴에 종주국의 기발을 달아야 했던 망국의 치욕, 돌아와도 반겨줄 조국이 없음을 품어올린것이 그 실음만도 가슴을 허비는데 그 침략자의 국기를 단 가슴을 지원비리고 자기의 장한 아들의 다리밖에 신문에 보여줄수 없었던 이 나라의 눈물의 아픔이여,
그러나 오늘 조선의 새로운 체육화를 창조한 우리의 너자추구선수들은 어떤 영광을 안고 어떤 행복에 겨워 세계앞에 나섰는가.

우승의 최고 광복새국기를 높이 날리며 우리는 사회사명관통자의 전사로 싸워왔다고 조국의 하늘을 우러러 승리의 경배를 드리고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감격의 눈물속에 목놓아 격정을 리치는 그들에게 온 나라가 동무들을 기다리고있다. 건강한 몸으로 빨리 돌아오라고 사랑의 축하전문을 보내주시고도 친히 비행장까지 나가서 개인장군들을 맞이하신 격정의 화폭, 이제 며칠이면 우리 조국이 70년의 년풍을 새기는 이 8월의 이기가 이다.

조선은 세계의 백두산대국이다.
력사는 이제 이 진리를 대대손손 증명하며 자기 힘으로 일떠선 진정한 강국이 펼쳐놓게 될 자주의 새 세계를 환희롭게 보여주게 될것이다.

어제날에는 위인을 모시지 못하여 나라를 빼앗긴것이 울림막마루손우승자였지만 가슴에 종주국의 기발을 달아야 했던 망국의 치욕, 돌아와도 반겨줄 조국이 없음을 품어올린것이 그 실음만도 가슴을 허비는데 그 침략자의 국기를 단 가슴을 지원비리고 자기의 장한 아들의 다리밖에 신문에 보여줄수 없었던 이 나라의 눈물의 아픔이여,
그러나 오늘 조선의 새로운 체육화를 창조한 우리의 너자추구선수들은 어떤 영광을 안고 어떤 행복에 겨워 세계앞에 나섰는가.

우승의 최고 광복새국기를 높이 날리며 우리는 사회사명관통자의 전사로 싸워왔다고 조국의 하늘을 우러러 승리의 경배를 드리고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감격의 눈물속에 목놓아 격정을 리치는 그들에게 온 나라가 동무들을 기다리고있다. 건강한 몸으로 빨리 돌아오라고 사랑의 축하전문을 보내주시고도 친히 비행장까지 나가서 개인장군들을 맞이하신 격정의 화폭, 이제 며칠이면 우리 조국이 70년의 년풍을 새기는 이 8월의 이기가 이다.

조선은 세계의 백두산대국이다.
력사는 이제 이 진리를 대대손손 증명하며 자기 힘으로 일떠선 진정한 강국이 펼쳐놓게 될 자주의 새 세계를 환희롭게 보여주게 될것이다.

어제날에는 위인을 모시지 못하여 나라를 빼앗긴것이 울림막마루손우승자였지만 가슴에 종주국의 기발을 달아야 했던 망국의 치욕, 돌아와도 반겨줄 조국이 없음을 품어올린것이 그 실음만도 가슴을 허비는데 그 침략자의 국기를 단 가슴을 지원비리고 자기의 장한 아들의 다리밖에 신문에 보여줄수 없었던 이 나라의 눈물의 아픔이여,
그러나 오늘 조선의 새로운 체육화를 창조한 우리의 너자추구선수들은 어떤 영광을 안고 어떤 행복에 겨워 세계앞에 나섰는가.

우승의 최고 광복새국기를 높이 날리며 우리는 사회사명관통자의 전사로 싸워왔다고 조국의 하늘을 우러러 승리의 경배를 드리고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감격의 눈물속에 목놓아 격정을 리치는 그들에게 온 나라가 동무들을 기다리고있다. 건강한 몸으로 빨리 돌아오라고 사랑의 축하전문을 보내주시고도 친히 비행장까지 나가서 개인장군들을 맞이하신 격정의 화폭, 이제 며칠이면 우리 조국이 70년의 년풍을 새기는 이 8월의 이기가 이다.

조선은 세계의 백두산대국이다.
력사는 이제 이 진리를 대대손손 증명하며 자기 힘으로 일떠선 진정한 강국이 펼쳐놓게 될 자주의 새 세계를 환희롭게 보여주게 될것이다.

어제날에는 위인을 모시지 못하여 나라를 빼앗긴것이 울림막마루손우승자였지만 가슴에 종주국의 기발을 달아야 했던 망국의 치욕, 돌아와도 반겨줄 조국이 없음을 품어올린것이 그 실음만도 가슴을 허비는데 그 침략자의 국기를 단 가슴을 지원비리고 자기의 장한 아들의 다리밖에 신문에 보여줄수 없었던 이 나라의 눈물의 아픔이여,
그러나 오늘 조선의 새로운 체육화를 창조한 우리의 너자추구선수들은 어떤 영광을 안고 어떤 행복에 겨워 세계앞에 나섰는가.

우승의 최고 광복새국기를 높이 날리며 우리는 사회사명관통자의 전사로 싸워왔다고 조국의 하늘을 우러러 승리의 경배를 드리고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감격의 눈물속에 목놓아 격정을 리치는 그들에게 온 나라가 동무들을 기다리고있다. 건강한 몸으로 빨리 돌아오라고 사랑의 축하전문을 보내주시고도 친히 비행장까지 나가서 개인장군들을 맞이하신 격정의 화폭, 이제 며칠이면 우리 조국이 70년의 년풍을 새기는 이 8월의 이기가 이다.

조선은 세계의 백두산대국이다.
력사는 이제 이 진리를 대대손손 증명하며 자기 힘으로 일떠선 진정한 강국이 펼쳐놓게 될 자주의 새 세계를 환희롭게 보여주게 될것이다.

어제날에는 위인을 모시지 못하여 나라를 빼앗긴것이 울림막마루손우승자였지만 가슴에 종주국의 기발을 달아야 했던 망국의 치욕, 돌아와도 반겨줄 조국이 없음을 품어올린것이 그 실음만도 가슴을 허비는데 그 침략자의 국기를 단 가슴을 지원비리고 자기의 장한 아들의 다리밖에 신문에 보여줄수 없었던 이 나라의 눈물의 아픔이여,
그러나 오늘 조선의 새로운 체육화를 창조한 우리의 너자추구선수들은 어떤 영광을 안고 어떤 행복에 겨워 세계앞에 나섰는가.

어제날에는 위인을 모시지 못하여 나라를 빼앗긴것이 울림막마루손우승자였지만 가슴에 종주국의 기발을 달아야 했던 망국의 치욕, 돌아와도 반겨줄 조국이 없음을 품어올린것이 그 실음만도 가슴을 허비는데 그 침략자의 국기를 단 가슴을 지원비리고 자기의 장한 아들의 다리밖에 신문에 보여줄수 없었던 이 나라의 눈물의 아픔이여,
그러나 오늘 조선의 새로운 체육화를 창조한 우리의 너자추구선수들은 어떤 영광을 안고 어떤 행복에 겨워 세계앞에 나섰는가.

우승의 최고 광복새국기를 높이 날리며 우리는 사회사명관통자의 전사로 싸워왔다고 조국의 하늘을 우러러 승리의 경배를 드리고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감격의 눈물속에 목놓아 격정을 리치는 그들에게 온 나라가 동무들을 기다리고있다. 건강한 몸으로 빨리 돌아오라고 사랑의 축하전문을 보내주시고도 친히 비행장까지 나가서 개인장군들을 맞이하신 격정의 화폭, 이제 며칠이면 우리 조국이 70년의 년풍을 새기는 이 8월의 이기가 이다.

조선은 세계의 백두산대국이다.
력사는 이제 이 진리를 대대손손 증명하며 자기 힘으로 일떠선 진정한 강국이 펼쳐놓게 될 자주의 새 세계를 환희롭게 보여주게 될것이다.

어제날에는 위인을 모시지 못하여 나라를 빼앗긴것이 울림막마루손우승자였지만 가슴에 종주국의 기발을 달아야 했던 망국의 치욕, 돌아와도 반겨줄 조국이 없음을 품어올린것이 그 실음만도 가슴을 허비는데 그 침략자의 국기를 단 가슴을 지원비리고 자기의 장한 아들의 다리밖에 신문에 보여줄수 없었던 이 나라의 눈물의 아픔이여,
그러나 오늘 조선의 새로운 체육화를 창조한 우리의 너자추구선수들은 어떤 영광을 안고 어떤 행복에 겨워 세계앞에 나섰는가.

우승의 최고 광복새국기를 높이 날리며 우리는 사회사명관통자의 전사로 싸워왔다고 조국의 하늘을 우러러 승리의 경배를 드리고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감격의 눈물속에 목놓아 격정을 리치는 그들에게 온 나라가 동무들을 기다리고있다. 건강한 몸으로 빨리 돌아오라고 사랑의 축하전문을 보내주시고도 친히 비행장까지 나가서 개인장군들을 맞이하신 격정의 화폭, 이제 며칠이면 우리 조국이 70년의 년풍을 새기는 이 8월의 이기가 이다.

조선은 세계의 백두산대국이다.
력사는 이제 이 진리를 대대손손 증명하며 자기 힘으로 일떠선 진정한 강국이 펼쳐놓게 될 자주의 새 세계를 환희롭게 보여주게 될것이다.

어제날에는 위인을 모시지 못하여 나라를 빼앗긴것이 울림막마루손우승자였지만 가슴에 종주국의 기발을 달아야 했던 망국의 치욕, 돌아와도 반겨줄 조국이 없음을 품어올린것이 그 실음만도 가슴을 허비는데 그 침략자의 국기를 단 가슴을 지원비리고 자기의 장한 아들의 다리밖에 신문에 보여줄수 없었던 이 나라의 눈물의 아픔이여,
그러나 오늘 조선의 새로운 체육화를 창조한 우리의 너자추구선수들은 어떤 영광을 안고 어떤 행복에 겨워 세계앞에 나섰는가.

우승의 최고 광복새국기를 높이 날리며 우리는 사회사명관통자의 전사로 싸워왔다고 조국의 하늘을 우러러 승리의 경배를 드리고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감격의 눈물속에 목놓아 격정을 리치는 그들에게 온 나라가 동무들을 기다리고있다. 건강한 몸으로 빨리 돌아오라고 사랑의 축하전문을 보내주시고도 친히 비행장까지 나가서 개인장군들을 맞이하신 격정의 화폭, 이제 며칠이면 우리 조국이 70년의 년풍을 새기는 이 8월의 이기가 이다.

조선은 세계의 백두산대국이다.
력사는 이제 이 진리를 대대손손 증명하며 자기 힘으로 일떠선 진정한 강국이 펼쳐놓게 될 자주의 새 세계를 환희롭게 보여주게 될것이다.

어제날에는 위인을 모시지 못하여 나라를 빼앗긴것이 울림막마루손우승자였지만 가슴에 종주국의 기발을 달아야 했던 망국의 치욕, 돌아와도 반겨줄 조국이 없음을 품어올린것이 그 실음만도 가슴을 허비는데 그 침략자의 국기를 단 가슴을 지원비리고 자기의 장한 아들의 다리밖에 신문에 보여줄수 없었던 이 나라의 눈물의 아픔이여,
그러나 오늘 조선의 새로운 체육화를 창조한 우리의 너자추구선수들은 어떤 영광을 안고 어떤 행복에 겨워 세계앞에 나섰는가.

우승의 최고 광복새국기를 높이 날리며 우리는 사회사명관통자의 전사로 싸워왔다고 조국의 하늘을 우러러 승리의 경배를 드리고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감격

영웅조선의 경이적인 체육신화를 창조한 그 위훈 조국청사에 빛나리

2015년 동아시아축구연맹 여자동아시아컵경기대회에서 우승한 여자축구선수들의 자랑스런 성과를 두고

우리 여자축구선수, 감독들이 품은 영웅의 단상에 올랐다.

어제는 한없는 믿음과 사랑 어린 축하편지를 보내주시고 오늘은 비행장까지 나오시며 제인저 맞이해주시며 뜻깊은 기념사진까지 찍으신 경여하는 원수님.

축부의 꽃수레를 타고 조국인민들이 수심리연도에 펼친 쾌배를 분창하고 기이 우송하며 민수대언덕에 오른 영광의 주인공 공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통상을 삼가 우리러며 마음속으로 꿰뚫었다.

어버이 수령님, 위대한 장군님, 저희들을 승리의 단상에 올려세워주신분은, 이 세상 모든 영광을 다 받으셔야 하시실은 우리의 경여하는 원수님이십니다.

조국의 하늘가로 풀없이 메아리쳐간 이 심장의 뱀속에서 필승의 진기가 새차게 고동쳤다. 경여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모든 체육인들은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온 뱀과 심장을 불태우며 국제경기장에서 영웅조선의 새로운 체육신화를 창조해나가는 당의 미더운 체육조선사, 조국과 인민의 자랑스러운 아들딸이 되어야 합니다.》

위대한 전승 60년을 맞은 2년전 7월에 진행된 2013년 동아시아여자축구경기대회에서 우승, 지난해에 열렸던 제 17차 아시아경기대회 여자축구경기에서도 단연 1위를 쟁취, 조국해방 일흔과 조신로 동당창건 일흔을 맞은 뜻깊은 올해에 2015년 동아시아축구연맹 여자동아시아컵경기대회에서 또다시 영예의 금메달을 안아올린 격동적인 성과!

되새겨볼수록 가슴벅찬 우리 여자축구의 편승승은 역사에 뚜렷이 새겨고있는가. 중국의 무한에서 진행된 2015년 동아시아축구연맹 여자동아시아컵경기대회의 한차례한차례의 경기가 다 치열한

백두의 공격정신으로 연속패승을 떨친 무적의 강팀

경여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시는 이 불멸의 찬양을 새로운 전투명령으로 새겨안고 오늘까지 즐기며 달려온 경여하는 원수님, 승리만을 알았다.

당시 풀속에서 다지고자던 백두의 공격정신, 백두산적공적정신의 위력을 더욱 가슴후련히 떨쳤다.

책임감독 김광민동무의 지도 밑에 훈련의 나날 알았듯이 편마한 백두산적공적정신을 잘 살리면서 상대팀 선수들이 갈피를 잡을수 없게 경기장을 중

첩무진하며 방어진을 허물고 유리한 득점기회를 마련해가는 우리 선수들의 그 용맹한 기상은 그대로 일행전리전술, 통성시적전술 등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독창적인 전법으로 적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던 할일유격대원들의 필승의 기상이 아니었던가.

2번 윙공미션수가 벌차기로 성공시킨 첫 득점도 통쾌한 것이었다. 불의의 응망으로 돌입하여 상대팀의 여러명 선수들까지 빼들리고 기묘하게 공을 차넣어 두번째 골을 기록한 주장

10번 라온심신수의 멋들어진 득점장면은 전선가들과 예호가들의 찬란을 더욱 모았다.

외국의 한 텔레비전방송은 우리 나라의 라온심신수를 세계적으로 유명한 어느 한 나라의 남자축구명수에 비기까지 하였다.

마침내 2015년 동아시아축구연맹 여자동아시아컵경기대회에서 단연 우승하여 영예의 금메달과 우승컵을 보란듯이 들어올린 우리 감독, 선수들, 그 찬란한 시각에 승리자들이 펼칠 휘날린 공화국기가 온

경기장을 물들였다. 성과는 이뿐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라온심신수는 최고득점자 상을, 위정심신수는 최우수선수 상을, 김남희선수는 최우수수방이 상을 수여받았다.

조국청사에 빛날 경이적인 체육신화를 창조한 우리 선수들의 위훈은 온 나라 인민을 격동시키고 미래를 새차게 들끓이고있다.

백두의 넘과 기상, 할일뱀재산의 공격정신으로 전진하는 우리 공화국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다는

필승의 전리를 역사에 뚜렷이 새기고있다.

태양의 빛발이 찬란한 내 조국, 백두의 공격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폭풍처럼달리는 선군조선은 체육강국건설에서도 경여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모든 체육인들은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온 뱀과 심장을 불태우며 국제경기장에서 영웅조선의 새로운 체육신화를 창조해나가는 당의 미더운 체육조선사, 조국과 인민의 자랑스러운 아들딸이 되어야 합니다.》

위대한 전승 60년을 맞은 2년전 7월에 진행된 2013년 동아시아여자축구경기대회에서 우승, 지난해에 열렸던 제 17차 아시아경기대회 여자축구경기에서도 단연 1위를 쟁취, 조국해방 일흔과 조신로 동당창건 일흔을 맞은 뜻깊은 올해에 2015년 동아시아축구연맹 여자동아시아컵경기대회에서 또다시 영예의 금메달을 안아올린 격동적인 성과!

위훈을 영광의 단상에 올려세워주시는 경여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모습에 보오면서 정령태양의 품속에 안겨사는 우리 체육인들보다 더 행복하고 긍지로운 체육인들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하는 격정을 금할수 없었다.

경여하는 원수님의 한없는 믿음과 사랑에 충정으로 보답할

이념이 가슴속에 차넘친다. 지금 체육부문의 전제 일꾼들과 체육인들은 오늘의 성과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경여하는 원수님께 승리의 보고만을 드릴 수밖에는 승리의 열의로 가슴 불태우고있다.

나는 체육부 책임일꾼의 본분을 새겨안고 앞으로 선수들속에 더욱 깊이 들어가 위대한 수령님의 충고와 가르침을 받들어 우리 체육부문을 더욱 충실하게 맡아 수행하고 모든 종류의 공적정신을 확고히 담보된 공격정신을 완성하여 훈련과 경기들에

어 날마다 명징한 것 같은 심정을 금할수 없다고 하면서 극강 지도도 처장 김철선은 격동적인 마음을 이렇게 리놓았다.

국제경기무대에서 또다시 전진배승을 기록한 여자축구선수들에게 경여하는 원수님께서 축하편지를 보내주시고 비행장에까지 몸소 마중나오시어 크나큰 사랑을 베풀어주시었다. 전진배승을 기록한 여자축구선수들이 맞이하는 특권이 아닐수 없다.

경여하는 원수님께서 체육부 업무를 나라는 중대사로 내세우시고 나라에 체육인들만이 차지할수 있는 특권이 아닐수 없다.

경여하는 원수님께서 체육부 업무를 나라는 중대사로 내세우시고 나라에 체육인들만이 차지할수 있는 특권이 아닐수 없다.

경여하는 원수님께서 체육부 업무를 나라는 중대사로 내세우시고 나라에 체육인들만이 차지할수 있는 특권이 아닐수 없다.

경여하는 원수님께서 체육부 업무를 나라는 중대사로 내세우시고 나라에 체육인들만이 차지할수 있는 특권이 아닐수 없다.

경여하는 원수님께서 체육부 업무를 나라는 중대사로 내세우시고 나라에 체육인들만이 차지할수 있는 특권이 아닐수 없다.

경여하는 원수님께서 체육부 업무를 나라는 중대사로 내세우시고 나라에 체육인들만이 차지할수 있는 특권이 아닐수 없다.

경여하는 원수님께서 체육부 업무를 나라는 중대사로 내세우시고 나라에 체육인들만이 차지할수 있는 특권이 아닐수 없다.

온 나라가 끝없는 감격으로 들끓는다

이와 확고하게 마련되는 속에 우리 여자축구선수들은 시대를 뒤흔드는 체육신화까지 창조하였다.

우리의 미더운 체육인들이 세운 위훈은 나의 가슴에도 체육강국건설에 애국의 한마음을 다 바칠 의지를 굳게 새겨주고있다. 당의 의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체육부문에 대한 지원사업에

2월 17일과하자, 기술자독재의 한 성원된 궁지가 더욱 커진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과학자들이 당의 체육강국건설상, 강성국가건설상을 과학기술로 총칭하게 만들어야 할 결정적인 시기이다.

나는 집단의 창조적지혜와 열정을 함쳐 탁구경기판리와 관련한 체계를 개발 도입하여 얼마전에 우리 나라에서 진행된 GAC 월드컵 2015년 국제탁구연맹 세계대회경기대회 평양공화국경기대회의 성과적보장에 이바지한것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체육의 과학화발전의 돌파구를 앞장서서 열어나가겠다.

조국의 존엄과 영예를 만방에 떨치려는 우리의 미더운 체육인들은 강한 정신력으로 높은 체육과학기술이 안받침된 나라의 체육발전에서 커다란 혁신이 일어나게 될것이라고 가르쳐주시는 경여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심장에 새기고 높은 체육경기성과를 과학기술적으로 안받침하는 새로운 연구성과를 안고 10월의 대추전장에 몇몇이 들

어 서졌다. 온 나라가 이렇게 들끓고있다. 조국보위초소와 대견선장들, 해빛밝은 교정과 풍요한 가을을 마중가는 협동농들 아니 이 땅 어디에서나 한분분의 위대한 선군정신을 높이 모시며 체육에서도 통창훈을 부르는 우리 조국에 대한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소리로 설레이고 대고조전된 발구름소리를 더욱 높이 리치고 있다.

공격정신을 완성하여 훈련과 경기들에

어 날마다 명징한 것 같은 심정을 금할수 없다고 하면서 극강 지도도 처장 김철선은 격동적인 마음을 이렇게 리놓았다.

국제경기무대에서 또다시 전진배승을 기록한 여자축구선수들에게 경여하는 원수님께서 축하편지를 보내주시고 비행장에까지 몸소 마중나오시어 크나큰 사랑을 베풀어주시었다. 전진배승을 기록한 여자축구선수들이 맞이하는 특권이 아닐수 없다.

경여하는 원수님께서 체육부 업무를 나라는 중대사로 내세우시고 나라에 체육인들만이 차지할수 있는 특권이 아닐수 없다.

경여하는 원수님께서 체육부 업무를 나라는 중대사로 내세우시고 나라에 체육인들만이 차지할수 있는 특권이 아닐수 없다.

경여하는 원수님께서 체육부 업무를 나라는 중대사로 내세우시고 나라에 체육인들만이 차지할수 있는 특권이 아닐수 없다.

경여하는 원수님께서 체육부 업무를 나라는 중대사로 내세우시고 나라에 체육인들만이 차지할수 있는 특권이 아닐수 없다.

경여하는 원수님께서 체육부 업무를 나라는 중대사로 내세우시고 나라에 체육인들만이 차지할수 있는 특권이 아닐수 없다.

공격정신을 완성하여 훈련과 경기들에

어 날마다 명징한 것 같은 심정을 금할수 없다고 하면서 극강 지도도 처장 김철선은 격동적인 마음을 이렇게 리놓았다.

국제경기무대에서 또다시 전진배승을 기록한 여자축구선수들에게 경여하는 원수님께서 축하편지를 보내주시고 비행장에까지 몸소 마중나오시어 크나큰 사랑을 베풀어주시었다. 전진배승을 기록한 여자축구선수들이 맞이하는 특권이 아닐수 없다.

경여하는 원수님께서 체육부 업무를 나라는 중대사로 내세우시고 나라에 체육인들만이 차지할수 있는 특권이 아닐수 없다.

경여하는 원수님께서 체육부 업무를 나라는 중대사로 내세우시고 나라에 체육인들만이 차지할수 있는 특권이 아닐수 없다.

경여하는 원수님께서 체육부 업무를 나라는 중대사로 내세우시고 나라에 체육인들만이 차지할수 있는 특권이 아닐수 없다.

경여하는 원수님께서 체육부 업무를 나라는 중대사로 내세우시고 나라에 체육인들만이 차지할수 있는 특권이 아닐수 없다.

경여하는 원수님께서 체육부 업무를 나라는 중대사로 내세우시고 나라에 체육인들만이 차지할수 있는 특권이 아닐수 없다.

공격정신을 완성하여 훈련과 경기들에

어 날마다 명징한 것 같은 심정을 금할수 없다고 하면서 극강 지도도 처장 김철선은 격동적인 마음을 이렇게 리놓았다.

국제경기무대에서 또다시 전진배승을 기록한 여자축구선수들에게 경여하는 원수님께서 축하편지를 보내주시고 비행장에까지 몸소 마중나오시어 크나큰 사랑을 베풀어주시었다. 전진배승을 기록한 여자축구선수들이 맞이하는 특권이 아닐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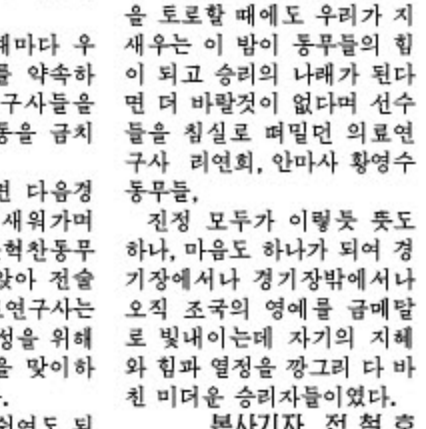
경여하는 원수님께서 체육부 업무를 나라는 중대사로 내세우시고 나라에 체육인들만이 차지할수 있는 특권이 아닐수 없다.

경여하는 원수님께서 체육부 업무를 나라는 중대사로 내세우시고 나라에 체육인들만이 차지할수 있는 특권이 아닐수 없다.

경여하는 원수님께서 체육부 업무를 나라는 중대사로 내세우시고 나라에 체육인들만이 차지할수 있는 특권이 아닐수 없다.

경여하는 원수님께서 체육부 업무를 나라는 중대사로 내세우시고 나라에 체육인들만이 차지할수 있는 특권이 아닐수 없다.

경여하는 원수님께서 체육부 업무를 나라는 중대사로 내세우시고 나라에 체육인들만이 차지할수 있는 특권이 아닐수 없다.



경여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출판보도기관들에서 체육경기와 관련한 소식과 자료들을 제때에 널리 소개선전하며 문화예술부문에서 체육인들의 활과 용기를 북돋아주고 대중속에서 체육열기를 높여줄수 있는 문예작품들을 많이 창작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 나라 여자축구팀이 2015년 동아시아축구연맹 여자동아시아컵경기대회에서 영예의 제 1위를 한 소식은 시인들의 가슴속에서도 들끓는 환희를 불러일으켰다.

조국의 영예를 빛내이는 앞날의 축구명수들로 튼튼히 준비해간다. -평양국제체육학교에서-

본사기자 리진명 씌음

백두대지에 꽃피는 선군청년문화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이 벌어지고있는 시기에 선군청년문화라는 새로운 시대가 태어나 수백만 청년들을 끊임없는 기적과 위훈창조로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경제는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에서 창조되고있는 문화는 선군청년문화입니다.》

지난 4월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을 앞둔 시기에 원수님께서는 공사조직원 불리한 북부고산지대에 첫살을 박은 때로부터 지금까지 많은 일을 해내셨다고 하시었다. 그리고 돌격대에서 창조되고있는 문화는 선군청년문화라고 하시면서 청년돌격대원들이 새로운 위훈을 값높이 내세워주시었다.

선군청년문화는 혁명적근로문화의 본보기로 하여 창조된 위대한 김정은시대 선군청년들의 문화이다. 여기에는 경제는 원수님의 손길아래 높이 발휘되고있는 선군청년들의 고상한 정신도덕적품성과 전투적인 투쟁기풍이 깃들여있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당의 환대한 구상에 따라 사회주의문화건설이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우리가 건설하는 사회주의강성국가는 전체 인민이 높은 문화적식과 건강체력, 고상한 도덕적품성을 지니고 가장 문명한 조건과 환경에서 사회주의문화생활을 마음껏 누리며 온 사회에 아름답고 건전한 생활기풍이 차넘치는 사회주의문명국이다. 오늘의 문명국건설을 힘있게 추동할수 있는 시대적모범이 사회의 가장 활력있는 부이며 미래의 주인공들인 우리 청년들에서 창조된것은 함으로 의의깊은 일이다.

백두대지에 꽃피는 선군청년문화는 시대정신이 맥박치는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문화이다.

문화에는 시대상이 비껴게 된다. 다시 말하여 문화에는 해당 시대 인민의 지향과 요구가 반영되고 사회의 풍조와 기상이 깃들게 된다. 시대정신이 살아있는 혁명적인 문화는 사람들을 교양하고 혁명적 건설을 진전시켜나가는 데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

오늘 우리는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이룩해나가는 격동적인 시대에 살고있다. 부닥치는 난관을 과감히 맞받아 뚫고나가는 완강한 투쟁정신, 백번 쓰러지면 백번 다시 일어나 싸우는 건철한 투쟁정신으로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나가고있는것이 우리 조국의 장엄한 현실이다. 이런 벅찬 시대의 승전, 항일혁명선열들의 투쟁정신이 맥박치고있는데 선군청년문화의 근본특징이 있다.

지금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에서는 모든 투쟁과 생활이 항일유격대식으로 진행되고있다. 비록 행진은 두르지 않고 백포자락은 날리지 않아도 청년돌격대원들모두가 항일투사들처럼 살며 일해나가고있다. 여기서는 아침일과부터가 정신이 번쩍 들고 그 어느 물결대별실에 가보아도 항일백제산의 전투의적이 개인 생활기풍을 엿볼수 있다. 산뜻하게 꾸러진 정양소와 휴식터에도 하루밤을 숙영해도 절도있게, 모가 나게한 빨저산의 정규화적면모가 깃들여있고 보기도 해도 호탕한 부업자와 동생한 창고들에도 알뜰하고 간전 살림살이품이 차넘치고있다. 곳곳에 꾸러놓은 청년일모양들에서 투르심성치하는 나무모를 통하여서도 항일혁명선열들의 넋을 이어 백두대지를 아름답게 가꾸어 가려는 우리 청년들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잘 알수 있다.

백두대지에 꽃피는 선군청년문화는 필승의 신념과 전투적방면으로 일관된 실천적인 문화이다.

락전적으로 살아 일하는것은 조선청년들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며 생활기풍이다. 리상도 높고 꿈도 많은 청춘시절에 웃음과 노래, 춤이 없다면 청춘의 광란도, 혁명하는 궁지도 있을수 없다.

노래소리 높은 곳에 혁명의 승리가 있다. 한편의 훌륭한 시나 연극, 소설은 천만사람의 가슴을 격동시킬수 있고 혁명적인 노래는 총알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도 적의 심장을 꿰뚫을수 있다.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은 웃음과 노래를 낳는 원천이다.

백두의 실천투쟁에서도 하모니카소리에 장단을 맞추어가며 흥겨운 춤판을 벌리던 항일유격대원들의 광란적인 문화적서생활기풍이 선군시대에 백두산기슭에서 또다시 꽃피고있다. 전투현장마다에서 힘있게 울려 퍼지는 《가리라 백두산으로》,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를 비롯한 시대의 진군가들과 들끓는 전후의 후식창에 벌어지는 격없는 화전노래들은 불타는 청춘의 열정과 기백으로 부닥치는 시련과 난관을 웃으며 맞받아나가는 청년돌격대원들의 투쟁기풍을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우리 청년들의 실천적인 기질은 특색있고 개성이 뚜렷한 직관적의 선전적, 소모작품들과 백두산선군청년청년대 글자잡집 《백두어니를 담으리》에도 깃들여있다. 《가는 길 힘내다 웃으며 가자!》, 이것은 영원히 백두의 청춘으로 살려는 우리 청년들의 심장의 웨칭이다.

백두전구에 꽃피는 선군청년문화는 숭고한 전우애, 동지애가 차넘치는 고결하고 아름다운 문화이다.

인간의 문화수준은 중요하게 도덕관, 도덕적품성에서 표현된다.

백두의덕을 떠나서는 동지들사이의 참다운 관계와 단합의 단합과 화목을 이룩할수 없으며 사회에 혁명적인 사

업기풍과 건전한 생활기풍을 세울수 없다. 동지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헌신은 참된 인간에게서만 찾아볼수 있는 고결한 품도이다. 사람의 인격과 인품은 그 사람이 지닌 도덕적품성에 따라 결정된다.

오늘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에서 우리 청년돌격대원들은 천지의 맑은 물과 공기처럼 청신하고 순결한 도덕의 리심을 지닌 선군시대의 훌륭한 젊은이들로 역세게 준비해나가고있다. 우리 나라 청년돌격대원들에서 처음으로 평범한 근로청년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원정철소대》는 자기 개인의 리익보다도 집단의 리익을 먼저 생각하고 동지들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서슴없이 바치는것을 의무로 여기고 동지들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는 숭고한 동지애는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역세게 버려주는 백두전구에서 발휘되는것으로 하여 더 뜨겁고 열렬한것이다. 기쁨과 괴로움도 함께 나누며 서로 돕고 이르는 고상한 미풍은 돌격대원들을 하나로 굳게 묶어주고있으며 이것은 그대로 기적창조로 이어지고있다.

참으로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은 우리 청년들을 사상과 신념의 강자로 뿐 아니라 도덕의 강자로 키우는 선군청년문화이다.

모든 청년들은 이 땅위에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을 일떠세우고 선군청년문화라는 새로운 시대로 우리 청년들을 값높이 내세워준 당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심장에 새기고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선봉대, 돌격대가 되고 빛나는 위훈의 창조자, 청년영웅이 되어야 할것이다.

조 학 철

녀맹일군들과 녜맹원들의 경축무도회 진행

조국해방 70돏경축 녜맹일군들과 녜맹원들의 무도회가 13일 개신문화관에서 진행되었다.

무도회장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고 개신연설을 하신 뜻깊은 곳에서 경축의 춤바다를 펼쳐진 녜맹원들의 기쁨으로 세차게 설레이었다.

《김일성대원수 만만세》의 노래선율이 장중하게 울려 퍼지자 무도회가 시작되었다.

경축의 춤바다를 펼쳐가는 참가자들의 열광마디에는 잃었던 조국을 찾아주시고 우리 녜맹들을 나라의 어엿한 주인으로,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힘있게 밀고나가는 녜맹영웅들을 키워주시기 위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이 뜨겁게

이러있었다.

그들은 력사가 일찌기 알지 못하는 영웅적행위로 조국해방의 민족사적위업을 이룩하시고 이 땅위에 자주로 존엄높고 신심으로 위대한 주제의 사회주의를 일떠세워주시기 위한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한없는 품도의 마음을 안고 춤출결을 일으켜나갔다.

《올라라!》, 《불타는 삶을 우린 사랑해》, 《달려가자 미래로》 등의 흥겨운 노래에 맞추어 순백장단을 치고 어깨를 들먹이며 춤을 추는 참가자들의 광란과 희열에 넘친 모습들은 사랑과 헌신으로 아름다운 미래를 창조하며 보람찬 삶을 빛내여가는 선군시대 녜맹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참가자들은 조선혁명의 지향한 행로에 빛나는 군민대단결의

위력으로 내 나라, 내 조국의 불패의 기상을 더 높이 떨쳐갈 신념과 의지를 안고 《헌신에서 만나자》, 《헌신행렬사》, 《승리는 대를 이어》를 비롯한 노래들을 부르며 열정적으로 춤을 추었다.

영웅대 미해도 다 맡기고 파를 또 한번의 절세의 위업을 높이 모신 나라 녜맹들의 끝없는 영광과 행복의 메아리인양 《인민의 환희》, 《인민이 사랑하는 우리 령도자의 노래가 울려 퍼지면서 무도회분위기는 더욱 고조되었다.

경축무도회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며 경제는 김정은동지의 선군명도를 충성다해 받들어 강성국가건설에 적극 이바지해나갈 우리 녜맹들의 드넓은 애국열의를 잘 보여주었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생애의 마지막까지 현저지도와 외국방문의 길에서 리용하신 승용차와 자동차, 배, 렬차보존실을 길은 강동속에 돌아보았다. 손님들은 방문록에 글을 남기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드리었다.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드리었다.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드리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외국 손님들 경의 표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13일 리복을 하시어 세계정치 의 원로, 혁명의 대성인으로 만민 의 심정속에 영생하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마음을 전제세위인들의 필승을 우리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드리었다.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드리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담화

미국이 세계의 우려와 여론을 무시하고 끝내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핵전쟁연습을 계속하는 길로 나아가고있다.

얼마전 미국은 남조선피괴들과 함께 오는 17일부터 우리를 겨냥한 침략적인 《올리 프리덤 가디언》함동군사연습을 벌려놓을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미국이 조선반도와 주변에서 한해에도 몇차례씩 끊임없이 벌려놓고있는 함동군사연습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엄청난 군사적도발이며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집중적표현이다.

미국은 이번에도 《넌체적》이며 《합동군사연습》이라는 꾀명으로 저들의 함동군사연습의 침략적성격과 위협성을 가리워보려고 획책하고있다.

우리는 《수도침범》을 노리고 방대한 무력과 핵전쟁장비들까지 동원되어 실현의 분위기에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드리었다.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드리었다.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드리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총련 교육일군대표단 경모의 정 표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드리었다.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드리었다.

조국해방 70돏기념 민족통일대회 참가자들 백두산 지구 탐관

조국해방 70돏을 즈음하여 조일민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구 대표가 13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 회견하였다.

회견에서 그는 항일의 전진영웅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위대성을 열렬히 칭송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8월 15일은 일제의 식민지통치로부터 나라와 겨레의 운명이 구원되고 민족번영의 새 력사가 펼쳐질 특기할 날이다.

력사의 날을 경축하는 날이면 민족의 고비를 넘어야 하는 항일의 혈전만리, 눈보라만리길은 결코 그 누구나 걸을수 있는 길이 아니다.

오늘도 백두산 줄기들과 압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드리었다.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드리었다.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드리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강석주동지가 수리아아랍조선친선협회대표단을 만났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강석주동지는 13일 조선해방 70돏을 즈음하여 스위스조선위원회에서 꽃바구니를 보내여왔다.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드리었다.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드리었다.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구 성원들 개선문 참관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위대한 주석님께서는 간고한 항일대전을 빛나는 승리로 이끄시어 조국을 해방하시었다.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드리었다.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드리었다.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드리었다.

민족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 절세위인의 조국해방업적

조국해방 70돏을 즈음하여 조일민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구 대표가 13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 회견하였다.

회견에서 그는 항일의 전진영웅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위대성을 열렬히 칭송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8월 15일은 일제의 식민지통치로부터 나라와 겨레의 운명이 구원되고 민족번영의 새 력사가 펼쳐질 특기할 날이다.

력사의 날을 경축하는 날이면 민족의 고비를 넘어야 하는 항일의 혈전만리, 눈보라만리길은 결코 그 누구나 걸을수 있는 길이 아니다.

오늘도 백두산 줄기들과 압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드리었다.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드리었다.

《조선해방, 력사의 전환점》 기네단체 불래진 발행

조선로동당장년 70돏, 조선해방 70돏을 기념하여 조선해방 70돏을 기념하여 불래진에서 7월 28일 불래진을 발행하였다.

불래진은 《조선해방, 력사의 전환점》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글을 편집하였다.

1945년 8월 15일은 조선인민에게 있어서 력사의 전환점이었다.

나라가 해방됨으로써 조선인민은 일제식민지노예의 처지에서 벗어나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국가와 사회의 당당한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존엄높은 삶을 누리려할수 있게 되었다.

15성상의 항일투쟁투쟁을 승리로 이끄시어 조선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신 김일성주석께서는 해방직후 조선인민에게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시었다.

당의 령도밑에 공화국북반부에서 짧은 기간에 인민정권이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드리었다.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드리었다.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드리었다.

조국해방 70돏을 즈음하여 수리아아랍친선협회 대표단 연회 마련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강석주동지는 13일 조선해방 70돏을 즈음하여 스위스조선위원회에서 꽃바구니를 보내여왔다.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드리었다.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드리었다.

총련 조선대학교 학생조국방문단을 도착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강석주동지는 13일 조선해방 70돏을 즈음하여 스위스조선위원회에서 꽃바구니를 보내여왔다.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드리었다.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드리었다.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드리었다.

주체적혁명력량으로 반제민족해방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신 불멸의 업적

조국해방의 최후공격작전을 승리로 이끄시여

일제는 아시아의 《명주》가 되려는 야망 밑에 침략의 길에 나섰으나 결코 조선을 비롯한 아시아인민들을 굴복시킬 수 없었으며 저들이 저지른 침략전쟁의 불길속에서 망하고말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국광복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하여서는 조선인민혁명군의 군사정치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자국의 혁명력량을 더욱 튼튼히 꾸리고 전민족을 일제와의 최후결전에 총동원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합니다.》

1940년대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조국해방3대목표에 따라 조선인민혁명군은 일제를 격멸하기 위한 최후공격작전을 준비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해방3대목표는 첫째로, 조선인민혁명군의 총공격으로 일제침략군에게 섬멸적인 타격을 주며 둘째로, 조선인민혁명군의 총공격에 호응하여 전민족적봉기를 일으키며 셋째로, 조선인민혁명군의 총공격에 배합하여 전민항쟁조직들의 배후원활작전을 벌리시게 되였다.

조국해방3대목표는 최후결전을 위한 준비를 다그치고 자국의 힘으로 조국해방의 위업을 이룩할 수 있는 길을 명확히 강령적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조선인민혁명군의 최후결전과 전민항쟁준비가 든든히 갖추어지게 되였다.

일제는 조선인민혁명군의 최후공격작전을 막아보고자 조선북부와 압록강, 두만강일대에 《정예》를 자랑하던 관동군 무력과 조선강경군을 대대적으로 투입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의 최후공격력세에 겁을 먹은 일제의 《대본영》은 1945년 5월 일제의 주력을 조선북부지역에 집중시키며 이종사기 지구를 벌리라는 작전계획을 하였다.

《대본영》은 또한 《민주 전지역을 버려도 좋으나 제국전반의 상황을 놓고 볼 때

조선은 《최후의 1선》으로서 절대적으로 틀어쥐고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관동군》, 중앙공보사, 1967년, 189페이지 참조)고 하면서 《조선을 사수하라.》는 명령을 떨어뜨렸다. 이리하여 조선은 멸망에 직면한 일제에게 있어서 《최후의 1선》으로 되었으며 일제는 조선북부와 국경일대에 무력을 집중하게 되였다.

일제침략군은 조선의 북부지역일대에 구름처럼 밀려들었으며 조선인민혁명군의 공격을 막아보려고 2중방어전지를 구축하고 두만강, 압록강일대의 《국경요새》를 더욱 강화하기에 미처나들지 않았다.

일제는 《국경요새》, 《항구요새》들을 《철옹성의 방어진》으로 꾸리고 멸망의 위기를 모면해보려고 마지막발악을 다하였다.

천리해안의 예지와 선전지명으로서 일제의 기도를 환히 통찰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비범한 군사적예지와 지성, 선묘한 전략적술로 일제의 대병력을 순식간에 격멸소탕할 작전계획을 세우시였으며 각 부대로 하여금 현대적군사전법을 소유하고 각종 전투기술기계를 능숙히 다룰수 있게 준비하고 병종간의 협동훈련과 종합전술훈련도 진행하여 군사정찰활동도 활발히 벌리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제 34 (1945)년 8월 9일 디디어 조선인민혁명군 전부대에 일제를 격멸하기 위한 최후공격명령을 내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최후공격명령을 받들고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은 강도 일제침략군을 격멸소탕하면서 노도와 같이 조국에 진군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행할무쌍한 작전지휘에 따라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은 《국경요새》와 《항구요새》에 대한 선제타격, 지상부대와 해안상륙부대의 협동작전을 돌리대어 일제침략군부대들을 격멸소탕하였다. 국내에 파견되어 활동하던 조선인민혁명군 소부대들과 정치공작원들은 인민부장직과 무장봉기조직들, 광범한 인민들을 무장폭동에 힘있게 조직동원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군사적지략과 선묘한 전략적술에 의하여 《정예》를 자랑하던 관동군과 조선강경군은 이르는 곳마다에서 산산조각이 나고 침략군부대들은 헤어날수 없는 궁지에 빠져 광장질 땅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최후공격명령을 받들고 조선인민혁명군이 최후공격작전을 개시한것과 때를 같이하여 소련군도 일제침략군에 대한 총공격을 개시하였다.

일본본토에 대한 상륙작전을 회피하면서 일본에 투자제의 원자폭탄공격을 감행하고서도 일제의 항복을 받아내지 못하여 초조해하던 미제는 조선인민혁명군이 일제침략군에 대한 최후격멸전을 벌리면서 조선 전지역을 해방할 기세로 전격하고 전국도처에서 전민항쟁의 불길이 타오르자 조선을 분별시켜 남부조선만이라도 강점하려는 소 한차례의 모략책동에 말라붙었다.

미제가 일본본토에도 발을 들여놓지 못하고 더우기 조선에는 아직 접근도 하지 못했음뿐 아니라 조선강경 일제침략군에 단 한번의 비행타격도 하지 못한 주제에 조선의 38°선 남부를 저들의 작전지역으로 한다는것을 조선을 강점하기 위한 모략에 지나지 않았다.

조선인민혁명군의 드넓은 공역에 의하여 《최후의 1선》으로 되고있던 조선에서 일제침략군은 결정적타격을 받았으며 일제가 《대본영》이라고 자랑하던 100만 명의 관동군은 괴멸되었다.

일제는 더는 전쟁을 계속할수 없게 되었고 그들에게 남은것은 오직 무조건 항복하는 길뿐이었다.

조선인민혁명군이 최후공격작전을 개시하여 북부지역을 돌파하고 소련군대가 만주역으로 돌입할때인 8월 9일 오전 11시에 공중의 지휘방포로서 일제의 《김일성고정비무장지대의기》가 열리고 여기서 수상 스피커는 《우리는 종국적으로 곤경에 처하게 되었는데도 전쟁을 더는 계속할수 없게 되었다.》고 비명을 질렀으며 외상 보고는 당장 항복해야 한다고 하였다.

일제는 조선인민혁명군과 변함부대들이 《이제 10시간이면 서울에 남하할수 있고 또 10시간이면 부산을 해방할 때에 있다. 이에 비하여 미군은 가장 가까운 대포아까기나와 있다.》라고 비명을 질렀다. 《(대본영)전사》8, (일문), 조선전, 1973년, 124페이지)

그러나 군부우두머리들은 더 싸워야 한다고 우겨대었다.

제왕은 군부우두머리들의 주장대로 만약 전쟁을 더 끈다면 조선인민혁명군의 진격을 더는 막아낼수 없고 패망자신이 단두대에 나서야 하며 군국주의세력의 가능성도 없어지리라는것을 우려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의 노도와 같은 전격과 인민들의 강력한 혁명적진출앞에서 그처럼 오만무례하게 기세를 부리던 일제의 《대본영》은 드디어 저들의 완전한 패배를 자인하고 무릎을 꿇었다.

탁월한 군사적지략과 백전백승의 강령의 명장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행할무쌍한 최후공격작전지휘에 의하여 일제가 그토록 기대하고있던 《최후의 1선》이 붕괴되었으며 미제의 우유부단한 책동을 리용하여 무조건항복을 거부하려던 일제의 최후발악적인 시도는 여지없이 파탄되었다.

이리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최후공격작전명령을 내리시던 1주일밖에 안되는 1945년 8월 15일 일제는 무조건 항복하였다.

오늘 미제에 의하여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는 미제의 아시아태평양전략에 편승하여 또다시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해보려고 우리 나라를 첫 공적목표로 삼고 대침략동을 로골화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혁명명도를 받드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미제군국주의의 자들과 일본군국주의의 자들의 그 어떤 침략책동에 절대로 허용하지 않고 단호히 짓부셔버릴것이며 일제의 과거죄행의 대가를 끝까지 받아내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채 일 출

자주로 이룩한 8.15해방

◇ 위대한 수령님께서 쌓아올리신 조국해방투쟁에 대한 격찬의 목소리가 세계곳곳에서 끊임없이 울려나오고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인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영도밑에 조직된 항일무장투쟁은 강대한 일제침략군을 반대하는 가장 강고하고도 영웅적인 투쟁》, 《조선의 항일혁명투쟁사는 어느 나라 당, 어느 나라 인민, 어느 나라 력사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빛나는 투쟁의 력사》, 《세계혁명운동에 공헌자도 영웅히 아로새겨야 할 아름답고 위대한 사사》...

70년대라는 세월이 흐르고 세기가 바뀌어도 우리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조국해방업적은 이렇듯 만방에 찬연히 빛을 뿌리고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혁명업적은 그 어느 것이나 다 세인의 경탄과 감동을 자아내지만 특히 조국해방업적은 제국주의자들이 지배당파와 식민지배분할을 위해 무분별하게 내뿜던 시기에 이룩된것으로 하여 더욱 만민의 칭송을 받고있다.

◇ 8.15해방은 자주로 이룩한 전민적항쟁의 빛나는 승리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일성동지는 자주의 기치밑에 우리 혁명을 백성의 힘으로 이끄시여 현대력사를 새롭게 개척하고 빛나인 탈월하고 새로운 혁명의 영도자이다.》

20세기 전반기 식민지배분할투쟁사를 놓고보면 많은 나라 항쟁세력들은 큰 나라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민족적독립을 이룩할수 없었던것으로 여기고있다. 사대와 교조자관을 지닌 시기였다.

그러한 시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 누구도 감히 내놓을수 없었고 제기도 하지 못하던 자주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자국의 힘과 역량으로 조국해방의 력사적업적을 성취하시였다.

본사기자 채 일 출

은 조선당에 뿌리박고 확대된 조국광복회 조직들과 그 산하에 꾸려진 무장대오들이 조선인민혁명군의 국내진공속도에 발을 맞추어 일제히 들고일어나 자기 지역들에서 일제의 통치기관들을 들부시고 침략자들을 때려부신 사실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주체적혁명력량으로 조국해방을 이룩할때 대한 사상이 얼마나 정당했었는가를 오히려 입증해준다. 당시 미국은 한 의고문서에 《조선공산당(조선인민혁명군)이 적절할 시기에 조선반도를 휩쓸지 못했다.》고 밝힘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영도에 의하여 조선에서의 일제의 패망이 이미 기정사실화되어있음을 공식 인정하였다.

8.15해방은 그야말로 우리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자주로서의 빛나는 승리이다.

◇ 우리 나라에서 8.15해방을 안은 자주사상은 오늘날 세계민족해방투쟁의 고귀한 지도적지침으로 되고있다.

세월은 흐르고 시대는 멀리 전진하였어도 제국주의는 여전히 남아 다른 나라 인민들을 신식민지노예로 만들고 세계를 제패하려 하고있다. 여러 나라들이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전쟁의 희생물로 되었고 《세계화》의 교활한 마수에 걸려들어 경제적타락을 당하고있다.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자주적으로 민족해방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이 더욱더 격렬하게 벌어지고있다. 이 투쟁의 지도적지침은 바로 우리 수령님의 자주사상, 주체사상이다.

20세기 전반기 식민지배분할투쟁사를 놓고보면 많은 나라 항쟁세력들은 큰 나라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민족적독립을 이룩할수 없었던것으로 여기고있다. 사대와 교조자관을 지닌 시기였다.

그러한 시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 누구도 감히 내놓을수 없었고 제기도 하지 못하던 자주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자국의 힘과 역량으로 조국해방의 력사적업적을 성취하시였다.

본사기자 채 일 출

로동자들이 69대의 일본비행기를 파괴하였다. ...》(《베. 아르보이 《조선》 43-44 페이지, 소련해군출판사 1945년 9월)

제반 사실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조직지휘하시는 최후공격작전에 배합하여 전민항쟁조직들이 도처에서 활발히 투쟁함으로써 조선인민의 주체적항쟁에 의한 조국해방이 빛나게 이루어졌다는것을 보여준다.

본사기자 김 철 훈

전민항쟁의 거세찬 불길은 일제의 패망을 앞당겼다

김일성》이라는것 등을 선전하며 활동하였다고 기록되어있다.

배두산씨에 대한 일본경찰들이 남긴 자료내용을 보면 조직의 이름을 조선인민혁명군이 백두산을 근거지로 하여 싸우고 있다는데로써 배두산씨라고 지어 활동하고있었다. 배두산 씨가 조선독립을 위해 조선인민혁명군일대대의와 민족의식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벌였다고 기록되어있다.

일제침략자들은 《대동아공영권》의 야망을 이루어보려고 대평양전쟁을 일으켰으며 이를 위해 조선사람들을 대상으로 간악한 징병제를 실시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조직지휘하시는 조국해방을 위한 최후공격작전에 펼쳐나가기 위해 전민항쟁조직들은 일제의 징병제실시를 반대하여 곳곳에서 들끓어 일어났으며 그것을 조국해방을 위한 투쟁으로 이어나갔다.

전민항쟁조직들은 징병제실시와 관련하여 당시 일본수상도 조에 대해 여러종의 경고장들을 보내였다.

일제의 《특고월보》(1943년 2월)에서 서술된 당시 백성군 청년일동의 이름으로 군국주의우두머리 도요에게 보낸 경고장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선은 독립한다.

...적국 일본이여 각성하라.

너희들이 아무리 반도에 정병제를 실시하여 군대를 양성하려 하지만 나는 조국에 그날을 기다리고있다. 나중에 총검을 들러달라. 우리의 적은 일본인이다. ...

우리들은 조국 조국을 위하여 생명을 바친 사람으로서 적국 일본에는 어디까지나 반항한다. 죽을 때까지 반항한다. 죽어서도 역시 반항한다. ...》

이외에도 조국해방단, 일철비밀결사 등 수많은 항쟁조직들에 대한 무장자료를 일제의 비밀문건에 그대로 기록되어있다.

전민항쟁조직들은 일제침략군내에도 조직을 꾸려 최후공격작전준비를 힘있게 다그쳤다.

1944년 진해만에 있던 일본해병대원의 조선청년들이 《김일성장군님부대에 팔려가 산하에서 조선독립을 기어》하자고 하면서 무장봉기를 일으켜 집단탈출한 일 일본군 30사단에서 조

선청년들이 반일학교병무장대를 조직하고 조선인민혁명군이 집단적으로 합류할 때까지 세는 사실들이 그것을 보여주고있다. 그 당시 일본군은 반일학교병무장대사건을 두고 김군도대의 《반란음모》의 하나라고 비명을 질렀다.

미국에서도 조선에서의 전민항쟁투쟁에 대한 소식을 전하였다.

1942년에 김일성대의 영항에 의하여 일어난 제주도의 한 비행장에서 있는 조선인로동자들의 대규모적인 폭동에 대한 기사가 그해 7월에 미국 《뉴욕타임스》에 실렸다.

《워싱턴발 7월 17일 ... 지난 3월 조선에서 계속되는 적국적인 반일폭동은 규원파트섬(제주도를 말할) 혹은 사이슈에 있는 일본공군기지의 심한 파괴를 초래하였다. ...

규원파트섬은 조선반도의 남쪽끝에서 떨어진 곳에 있으며 조선해협과 조선서해협구의 주요지점을 차지하고있다.

3월 29일 섬에 있는 조선로동자들이 공군기지를 습격하고 있다고 한다. 그들은 무전소를

파괴하고 4개의 지하격납고에 불을 질렀다. 이 습격에서 142명의 일본인비행사들과 기술인원들이 죽었으며 다른 200명이 화상을 당하거나 부상을 입었다. 부개의 휘발유저장창고와 69대의 비행기가 파괴되었다.

3월 1일 북부조선에서도 조선사람들이 폭약으로 세계의 발

파괴하고 4개의 지하격납고에 불을 질렀다. 이 습격에서 142명의 일본인비행사들과 기술인원들이 죽었으며 다른 200명이 화상을 당하거나 부상을 입었다. 부개의 휘발유저장창고와 69대의 비행기가 파괴되었다.

3월 1일 북부조선에서도 조선사람들이 폭약으로 세계의 발

파괴하고 4개의 지하격납고에 불을 질렀다. 이 습격에서 142명의 일본인비행사들과 기술인원들이 죽었으며 다른 200명이 화상을 당하거나 부상을 입었다. 부개의 휘발유저장창고와 69대의 비행기가 파괴되었다.

3월 29일 섬에 있는 조선로동자들이 공군기지를 습격하고 있다고 한다. 그들은 무전소를

파괴하고 4개의 지하격납고에 불을 질렀다. 이 습격에서 142명의 일본인비행사들과 기술인원들이 죽었으며 다른 200명이 화상을 당하거나 부상을 입었다. 부개의 휘발유저장창고와 69대의 비행기가 파괴되었다.

3월 29일 섬에 있는 조선로동자들이 공군기지를 습격하고 있다고 한다. 그들은 무전소를

파괴하고 4개의 지하격납고에 불을 질렀다. 이 습격에서 142명의 일본인비행사들과 기술인원들이 죽었으며 다른 200명이 화상을 당하거나 부상을 입었다. 부개의 휘발유저장창고와 69대의 비행기가 파괴되었다.

3월 29일 섬에 있는 조선로동자들이 공군기지를 습격하고 있다고 한다. 그들은 무전소를

파괴하고 4개의 지하격납고에 불을 질렀다. 이 습격에서 142명의 일본인비행사들과 기술인원들이 죽었으며 다른 200명이 화상을 당하거나 부상을 입었다. 부개의 휘발유저장창고와 69대의 비행기가 파괴되었다.

3월 29일 섬에 있는 조선로동자들이 공군기지를 습격하고 있다고 한다. 그들은 무전소를

파괴하고 4개의 지하격납고에 불을 질렀다. 이 습격에서 142명의 일본인비행사들과 기술인원들이 죽었으며 다른 200명이 화상을 당하거나 부상을 입었다. 부개의 휘발유저장창고와 69대의 비행기가 파괴되었다.

3월 29일 섬에 있는 조선로동자들이 공군기지를 습격하고 있다고 한다. 그들은 무전소를

파괴하고 4개의 지하격납고에 불을 질렀다. 이 습격에서 142명의 일본인비행사들과 기술인원들이 죽었으며 다른 200명이 화상을 당하거나 부상을 입었다. 부개의 휘발유저장창고와 69대의 비행기가 파괴되었다.

3월 29일 섬에 있는 조선로동자들이 공군기지를 습격하고 있다고 한다. 그들은 무전소를

파괴하고 4개의 지하격납고에 불을 질렀다. 이 습격에서 142명의 일본인비행사들과 기술인원들이 죽었으며 다른 200명이 화상을 당하거나 부상을 입었다. 부개의 휘발유저장창고와 69대의 비행기가 파괴되었다.

3월 29일 섬에 있는 조선로동자들이 공군기지를 습격하고 있다고 한다. 그들은 무전소를

파괴하고 4개의 지하격납고에 불을 질렀다. 이 습격에서 142명의 일본인비행사들과 기술인원들이 죽었으며 다른 200명이 화상을 당하거나 부상을 입었다. 부개의 휘발유저장창고와 69대의 비행기가 파괴되었다.

3월 29일 섬에 있는 조선로동자들이 공군기지를 습격하고 있다고 한다. 그들은 무전소를

파괴하고 4개의 지하격납고에 불을 질렀다. 이 습격에서 142명의 일본인비행사들과 기술인원들이 죽었으며 다른 200명이 화상을 당하거나 부상을 입었다. 부개의 휘발유저장창고와 69대의 비행기가 파괴되었다.

3월 29일 섬에 있는 조선로동자들이 공군기지를 습격하고 있다고 한다. 그들은 무전소를

파괴하고 4개의 지하격납고에 불을 질렀다. 이 습격에서 142명의 일본인비행사들과 기술인원들이 죽었으며 다른 200명이 화상을 당하거나 부상을 입었다. 부개의 휘발유저장창고와 69대의 비행기가 파괴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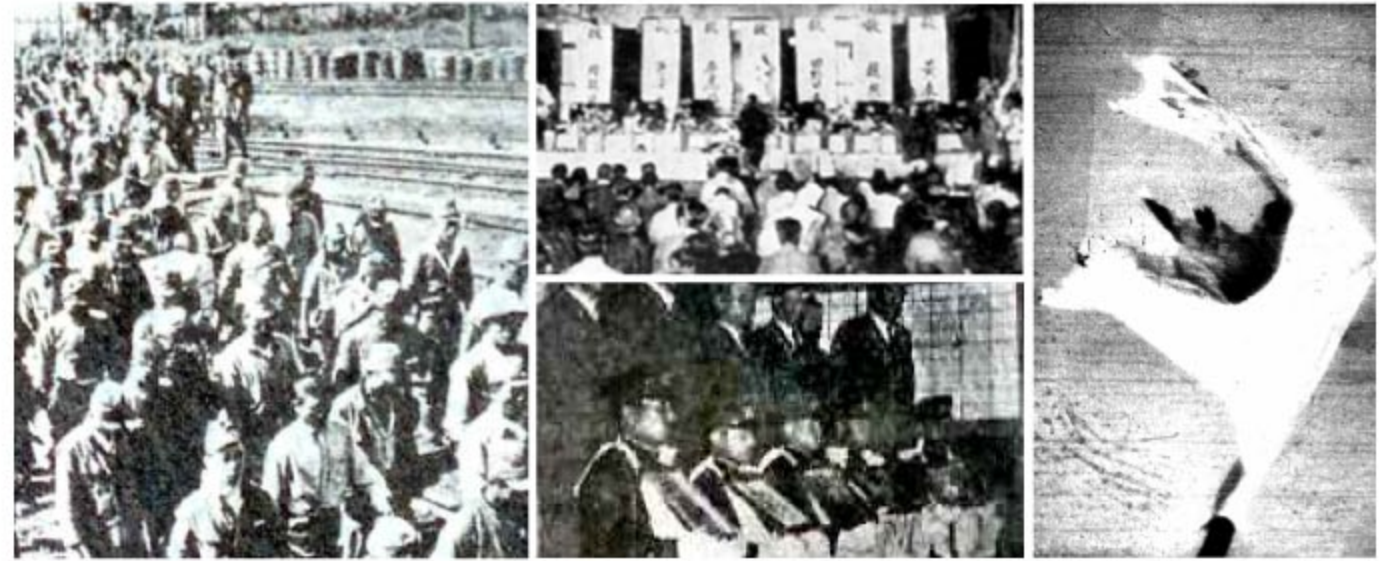
3월 29일 섬에 있는 조선로동자들이 공군기지를 습격하고 있다고 한다. 그들은 무전소를

파괴하고 4개의 지하격납고에 불을 질렀다. 이 습격에서 142명의 일본인비행사들과 기술인원들이 죽었으며 다른 200명이 화상을 당하거나 부상을 입었다. 부개의 휘발유저장창고와 69대의 비행기가 파괴되었다.

로동자들이 69대의 일본비행기를 파괴하였다. ...》(《베. 아르보이 《조선》 43-44 페이지, 소련해군출판사 1945년 9월)

제반 사실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조직지휘하시는 최후공격작전에 배합하여 전민항쟁조직들이 도처에서 활발히 투쟁함으로써 조선인민의 주체적항쟁에 의한 조국해방이 빛나게 이루어졌다는것을 보여준다.

본사기자 김 철 훈



일제의 패망상을 보여주는 가련한 불길들

군사적패권을 노린 교활한 술책

미국이 또다시 우리의 《위협》과 《도발》에 대해 떠들고있다.

얼마전 미해군함보총장지명자는 국회 상원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미해군이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은 《북조선의 도발행위와 탄도탄미사일능력향상》이라고 떠벌이었다.

그러면서 《미국이 안보위협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 동맹국들과 긴밀한 관계를 계속 강화하고 이들의 능력도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 《태평양지역에서 전방위적으로 자체해군력을 계속 증강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별로 놀랄거나 새삼스러운 소리로 아니다. 이것이 어느 일개인의 허풍소리나 아니라 미당국의 도발적이며 체계로운 상투적인 썩어빠진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미국이 《도발》이니, 《위협》이니 하는파위의 판에 박은 나쁜말 계속 불어대고있는것은 결국 이것을 구실로 저들의 무력증강행동을 합리화하려는 것이다.

미국이 우리의 자위적군사조직들을 《위협》으로 몰아붙이는것은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징검다리인 말로이다.

원래 전파위협에 대해 말한다면 그 장본인은 미국이다. 세계적으로 제일 많은 핵탄두수단들을 보유하고있는것도 미국이며 곳곳에 군사기지를 구축하며 전 세계를 노리고있는것도 다름이런 미국이다.

미국이 떠드는 우리의 《위협》설은 한갓 기만에 불과하다.

정치정권가들과 군사분석가들이 오바마행정부가 아시아태평양지역군현전략을 확립한 후 조선패권설을 줄곧 미국이 미일남조선군사동맹을 공고히 하기 위한 구실로 되어왔다고 평가하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한 소리가 아니다.

미국이 우리의 《위협》과 《도발》을 운운하는 목

적은 만데 있지 않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침략적군사동맹을 강화하고 무력을 증강하여 지역대구를 찍어말하면 중국과 러시아를 제압하고 군사적패권을 유지해보려는데 있다. 교활한 술책이니 아닐수 없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을 발판으로 세계를 제패하려는것은 새 세기에 들어와 더욱 부풀어오른 미국의 변함없는 야망이다.

그것은 오바마행정부시기에 와서 아시아태평양중시전략으로 등장하였다. 오바마도 역대 집권자들과 마찬가지로 지역에서 힘의 우세를 차지하는것을 군사전략의 근본목표로 내세웠다.

이에 따라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무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해미하고있으며 침략적인 군사행위를 형성하기 위해 책동하고있다.

이 모든것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약화되고 있는 저들의 정치군사적우세를 유지하기 위한 단말차적음모에 불과하다. 사실 미국이 아시아태평양중시전략을 내놓은것은 우리보다도 중국, 러시아를 비롯한 조선반도주변 대국들을 제압하기 위해서라고 해야 할것이다.

이 지역에서 끊임없이 강화되고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은 지역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패권을 지어 커다란 도전으로 되지 않을수 없다.

미해군함보총장지명자가 이번 인준청문회에서 《최근 태평양지역에서 급속히 해군력을 증강하고있는 중국의 세력팽창을 큰 위협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자체해군력증강을 떠벌인것은 이런 심리적압박감의 발현이다.》

미국은 그 어떤 술책으로도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상실되어가고있는 저들의 패권적지위를 되찾을수 없다. 미국은 《위협》이니, 《도발》이니 하는 허풍소리나 허풍소리나 아니라 세계정세의 파괴자로서의 더러운 정체를 절대로 거러올수 없다.

박 송 영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지지하여 캐나다공산당(맑스-레닌주의)이 5일 인라레트르페지에 글을 올렸다.

글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7월 27일은 조선과 미국사이에서 정전협정이 체결된 때부터 62년이 되는 날이다.

조선전쟁은 조선인민에 대한 침략전쟁이었다.

전쟁기간 미국은 조선을 강제로 굴복시키기 위해 무자비적인 폭력과 포격을 가하였으며 조선인민에 대한 세군 및 생화학전

을 감행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인 김일성주석과 조선로동당의 영도인 김정은조선인민은 3년간의 가련한 전쟁에서 미국을 타도하였다.

결국 미국은 조선전쟁에서 쓰디쓴 참예를 당하고 정전협정에 조인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러나 미국은 인민적리해판적으로 하여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것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있다. 미국은 조선전쟁에서 쓰디쓴 참예를 당하고 정전협정에 조인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러나 미국은 인민적리해판적으로 하여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것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있다. 미국은 조선전쟁에서 쓰디쓴 참예를 당하고 정전협정에 조인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미국은 조선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라

캐나다정당 인라레트르페지에 글 게재

조선반도에 대한 조선의 거듭되는 요구를 거부해나가고있다.

미국은 조선반도의 남쪽에 미군을 영구주둔시키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고있다.

1953년 미국은 남조선과의 《오상방위조약》을 체결한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해마다 공화국을 내로 각종 침략전쟁연습들을 공개적으로 벌이고있다.

아시아와 세계지배를 위해 전

조선반도를 강점하지는것이 미국의 목적이다.

현재 남조선에는 수만명의 미군과 군사기지가 일제적으로 배치되어있다.

미제가 조선에서 감행한 범죄행위들은 전세계에 폭로되었다.

평화와 정의, 자주와 통일을 지향하는 조선인민의 투쟁은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지지를 받고있다.

김정은각하의 명도를 받는 조

【조선중앙통신】

조선반도에 대한 조선의 거듭되는 요구를 거부해나가고있다.

미국은 조선반도의 남쪽에 미군을 영구주둔시키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고있다.

1953년 미국은 남조선과의 《오상방위조